

# 축제와 소동

-아오모리네부타축제(青森ねぶた祭り)의  
카라스하네토(カラスハネト)를 중심으로-

이 덕 구\*

(e-mail: dklee0618@hj.ac.kr)

---

## 目 次

---

1. 들어가면서
  2. 아오모리네부타축제(青森ねぶた祭り)의 유래와 변천
  3. 카라스하네토(カラスハネト)의 현상(現状)과 의미
    - 3.1. 카라스하네토(カラスハネト)의 정의와 출현배경
    - 3.2. 주최 측의 대처와 경과
    - 3.3. 카라스하네토의 의미와 시사점
  4. 나가면서
- 

## 1. 들어가면서

축제를 ‘커뮤니타스’<sup>1)</sup>나 ‘역할전도’ 혹은 ‘부례코(無禮講)’와 같은 일탈(逸脱)의 개념으로 규정한다면, 여기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sup>2)</sup> 즉, 사회규범의 부정

---

\* 혜전대학 호텔관광경영학과 부교수.

- 1) 터너(Turner, V.)는 관광이나 의례의 경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맞보는 혹은 체험하는 비일상적인 정신적 사회적 특징을 ‘라미날리티(Liminality)’라 하고 이러한 경계상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공간을 ‘커뮤니타스(Communitas)’라고 하면서, 이러한 커뮤니타스를 조성하는 것이 축제라고 했다. 축제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서 평상시에 입어볼 수 없는 옷을 입거나 모든 옷을 벗어버릴 수도 있고, 요란한 치장과 화장, 분장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며, 극도의 흥분이나 위험성, 일탈성 등이 용인되었다(安藤 2003:6, 류정아 2003:16~20, 재인용).
- 2) 장 뒤비뇨(Jean Duvignaud)는 축제를 “‘모호한 일상생활’의 습관과 규칙을 지키는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때로는 무례하고 신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치밀하고 예민한 상상적 창조적 순간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축제에서는 일상적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파괴적 행동과 일탈행

이야말로 축제의 중요한 특성이기에 폭력 등의 표출은 축제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그러나 오늘날 문명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적 기반에서 오락성과 목적성이 강한 이벤트적 개념으로 진행되는 현대적 축제 속에서의 소동은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금기가 되어 버리고 만다.

아시다(芦田 1990:56)가 일본의 전통축제의 무분별한 관광화를 “황금알을 구해서 어미닭을 죽여 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듯이 오늘날 수많은 일본의 전통축제는 모객을 위한 관광상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아오모리네부타축제(青森ねぶた祭り)는 ‘변용의 선구자’(森田 2000:254)로 불릴 만큼 일본의 그 어느 전통축제보다 앞서 관광상품으로 변화된 대표적 축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오모리네부타축제(青森ねぶた祭り)가 공동체 축제에서 관광상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일탈과 소동이 일어나면서 주최 측을 곤혹과 당황 속으로 몰아넣은 시기가 있었다. 즉, 정해진 축제의 프로세스에서 일탈하여 폭력을 휘두르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젊은이들 소위 카라스하네토(カラスハネト)가 1980년대부터 출현하여 그들로 인한 소동이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오모리네부타축제에 있어서의 이러한 소동의 실태, 즉 카라스하네토에 의한 소동의 발생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아오모리네부타축제에서는 왜, 어떠한 이유에서 카라스하네토가 발생하였으며, 그들은 어떻게 소동을 일으켰는지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짚어보고, 또 주최 측은 어떻게 대처하여 그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아가 이러한 소동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2.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유래와 변천

아오모리현(青森県) 일대에서 행해지는 네부타<sup>3)</sup>는, 현(県)의 남부지역을 제

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존에 용인되었던 기호들이 축제에서는 변조되고 파괴되는 쾌감을 맛볼 수 있어 일상과의 완전한 이탈이 추진된다”(류정아역 1998:20~24)고 하고 있다, 바흐친도 일상의 질서를 전도시키고 해학과 풍자를 통해 정치권력에 저항하는 기회로 축제를 규정했다. 바흐친에게 있어 축제는 민중의 제2생활을 표현하는 기제이며, 모든 억압적인 기존질서를 깨뜨리고 세상을 모두 뒤집어 놓으면서 사회적인 질서를 재편하는 역할을 한다. 축제는 분명히 파티나 페스티벌 등과 다른 개념으로서 억압된 자들의 저항의 문화이며 하층민들이 본 새로운 질서이다. 그것은 기존 윤리의 파괴가 아니라 억압구조를 해방적·상징적으로 뒤집는 것이다(유명숙역 1995:183~221)라 하여 공통적으로 일탈성(逸脱性)에서 축제의 본질을 구하고 있다.

3) 네부타라 함은 축제에 등장하는 구조물(대형네부타)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네부타를 운행하는 축제

외한 서부 츠가루(津輕)지역과 동부 시모기타(下北)지역에 편재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그 성격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오늘날 아오모리시(青森市)에서 연행되고 있는 ‘아오모리네부타축제(青森ねふた祭り)’는, 아오모리현(青森県) 일대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네부타의 하나로, 전후(戰後)에 관광 상품화를 의식하여 탄생한 새로운 주최축에 의해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대 이벤트로 변화된 행사로서 동북(東北)지방의 대표적 여름축제이다.

코마츠(小松 2000a:2~3)는 “아오모리시(青森市)에서 현재 연행되고 있는 ‘네부타’는 아오모리개항 이후 이 지역에 이주해온 상인(商人)들과 공인(工人)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제례로서, 히로사키(弘前) 주변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형태로 도입되었거나, 아니면 아오모리주변의 예로부터 있어온 농촌의 칠석행사가 모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발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도시의 성립을 고려해보면 다양한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또 사람과 물건이 왕래한 것으로 보아, 아오모리네부타의 구석구석에 히로사키(弘前)의 네부타(ねふた) 등과는 다른 독자의 스타일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 기원을 추측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아오모리네부타는 유래가 확실치는 않지만 개항과 함께 정착한 이주민집단들이 주변(히로사키)의 네부타를 흉내 내는 형태로, 연중행사의 하나인 제례로 시작되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왔으나, 차츰 도시가 거대화 되어, 네부타가 각 초나인들이 재력과 체력 그리고 응집력을 과시하는 즉, 도시의 주도권을 다투는 상징적인 장소로 기능하면서, 초나이간의 과열된 경쟁과 대항의식으로 인한 싸움과 폭력, 과도한 소비(규모, 소재, 화려함을 표출하는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이다.

- 4) 네부타의 기원에는 크게 민속학적 설명과 타무라마로전설(田村麻呂伝説) 그리고 츠가루번(津輕藩)의 시조(始祖) 이신(為信)의 ‘대등롱’의 고사(故事)의 세 가지 설이 있다. 민속학적 설명에는 네부타는 초기에는 ‘칠석제(七夕祭)’ 혹은 ‘네부타나가시(ねふた流し)’ 즉, 졸음(眠氣)을 쫓아 흘려보내는 신사(神社)나 사찰(寺刹)과 결부되지 않은 행사로서 그 기원을 농촌 등지에서 연행되고 있던 민속 행사에서 구하고자 하는 ‘촌락행사 원류설’과, 네부타는 기록에 남아있는 초기부터 ‘도시(町場)축제’이었기에 그 원류를 도시의 축제에서 구하는 ‘도시제례원류설’이 있다. 야나기다(柳田国男)로 시작되는 ‘촌락행사 원류설’은 ‘네부타’를 농촌지역에서 연행되고 있던 ‘칠석제’나, 작업을 방해하는 ‘졸음(眠氣)을 쫓아 흘려보내는 행사에서 그 기원을 구하는 설명이다. 야나기다(柳田1990:457)는 네부타가 촌락행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중시한다. 칠석(七夕)에 물을 끼얹기도 하고 강물에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는 이러한 행사가 아오모리현 츠가루(津輕)지방에서 토야마현(富山県)부근에 걸친 동해(日本海)측, 또 신슈(信州)나 칸토(關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의 비교로부터 “네부타는 츠가루와 그 밖의 지방의 성령(聖靈)보내기의 등롱과 통례로 동반하는 희생인형을 합체한 것일 것이다”라고 기원을 추측하고 있다. 즉 ‘네부타’를 이러한 촌락(村方)적 행사의 원류로 ‘부정(ケガレ)을 제거하는 의례나 역병신(疫病神)의 진혼의례(鎮魂儀礼)로 보았다. 기타의 기원에 대하여는 이덕구(2009:81~83)를 참조.

재력의 과시), 기괴하고 이상한 때로는 음란한 소재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의 소동이 동반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에도막부의 마지막 해(1867년)에 내려진 네부타 운행에 관한 훈령에는 “1) 싸우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말 것, 2) 네부타의 형태를 너무 크게 하거나 공을 많이 들여 만들지 말 것과 일인용 네부타만 내보낼 것, 3) 금전을 거두러 돌아다니는 것을 엄중히 금한다(靑森市市史編纂係 1909:497)”하고 있다. 또, 1873년에는 당시 아오모리현의 권령(權令:지금의 지사에 해당)이었던 히시다시게요시(菱田重禧)는 아오모리를 비롯한 히로사키의 네부타까지 모든 네부타의 금지령을 포달한다. “칠석제에 네부타라고 하는 다양한 우상을 가지고 나와 시가지 를 배회하는 것은, 이 지방의 풍습이지만, 이것은 옛날 에조(蝦夷)의 야만적인 풍습이 잔존하는 것으로 매우 천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최후에는 서로 싸움을 일으켜 매년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악습으로 간주하였다(清野 2000:74). 이와 같이 유신정부가 지방의 구습을 악습으로 지정하여 네부타의 운행을 금지시키고, 그 이전의 지배층도 네부타의 과도한 경쟁과 일탈이 사회적 규율을 해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규제하였던 바탕에는 싸움과 폭력이 동반된 소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탈적 경쟁으로 더욱 강화되는 주민들의 희열감과 공동체적 귀속감이 규제와 금지로 약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규제가 강화되거나 금지되면, 이를 우회하거나 또는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고, 따라서 반복적인 규제와 금지에도 불구하고 네부타는 생명력을 지니고 지속될 수 있었다.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소동을 동반한 제례행사로서의 아오모리네부타는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수년간 중지되었다가 1947년 행정기관(市)이 주도하는 관변행사인 미나토축제 속의 일부행사로서 부활하였고, 이후 고도성장기의 정치경제적인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모객을 의식한 거대한 관광이벤트로 변용되어, 그 이데올로기도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소동은 모습은 감추었다.

1960년대에는 본격적인 축제의 관광 상품화정책에 따라 축제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경비의 고액화로 지역을 모체로 하는 대형네부타가 격감하고, 행정이나 공공단체, 기업에 의한 네부타가 급증하였고, 유료관람석이 설치되고,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운행방식과 코스 및 일정의 변경이 잦았고, 네부타의 작품이 변화하는 등 프로그램(해상운행, 불꽃놀이, 미스네부타선발대회)과 분위기 등 전반적인 운영방식이 오락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객 중심으로 한층 진전되었다.

1970년대의 일본사회는 참여의식으로 대변되는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축제에 가세하여 축제는 내적인 성숙과 함께 300만에 육박하는

관객이 몰려 외적으로도 성숙기를 맞이하였다.

1980년대에는 전전(戰前)까지 크게 유행하던 중년이 중심이 되는 바게토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대신 청소년 하네토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여 대성황을 이룬 절정기이면서, 하네토의 오도리에 있어서 전통적인 정조(正調)의 오도리에서 벗어나 디스코풍의 오도리가 유행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등 축제의 관광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혼란기였다. 특히 현대도시사회의 문제점(가족 간의 대화 단절, 개인주의, 소외감, 인간관계의 희박화, 청소년문제 등)이 카라스하네토의 모습으로 축제에 나타나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맥락과 의미의 소동이 발생하였다.

표1)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변천

| 년도        | 변천내용   |
|-----------|--|
| 1593      | 京都에서 秀吉侯의 御前에서 津輕為信「津輕의 大灯籠」을 소개, 이후 연중행사로 됨                   |
| 1716~1736 | 油川(青森)에서 네부타축제 연행(青森ねぶた의 최초기록)                                 |
| 1869      | 浜町の 네부타는 높이 20미터, 100명이 메는 거대한 것이었다.                           |
| 1873      | 네부타 금지령(菱田県令)  |
| 1882      | 네부타 금지령해제  |
| 大正末期~昭和初期 | 바게토 대유행. 조립 네부타 등장. 전쟁으로 중지                                    |
| 1946      | 油川、旭町에서 네부타 부활   |
| 1947      | 부흥 미나토축제개최(해상운행 시작), 전쟁으로 중지되었던 네부타의 운행이 연행됨, 조명이 촛불에서 배터리로 전환 |
| 1948      | 미나토축제와 네부타를 연계하여 발전(네부타심사제도)                                   |
| 1952      | 青森관광협회창립   |
| 1958      | 青森미나토축제를 青森네부타축제로 변경, 東北三大축제로 지정                               |
| 1963      | 네부타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로 원정, 青森市文化財로 지정                                |
| 1968      | 첫 有料席 호평   |
| 1970      | 네부타 「大阪만국박람회」에 참가  |
| 1972      | 관객 200만명 돌파, 제1회 미스 네부타 콘테스트 실시                                |
| 1980      | 국가의 重要無形民俗文化財로 지정, 관객 300만명 돌파                                 |
| 1989      | 카라스하네토 소동에 대한 대책 본격화   |
| 1992      | 새로운 네부타 단지(랏세란도)탄생   |
| 1995      | 대형네부타의 종합최고상‘田村磨賞’이 ‘네부타大賞’으로 명칭변경                             |
| 2001      | 青森네부타 보존전승조례시행(카라스하네토 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 (社)青森관광컨벤션협회 발족           |
| 2005      | 愛知만국박람회에 참가, 青森네부타축제검토특별위원회 설치                                 |

<青森네부타축제홈페이지(<http://www.nebuta.or.jp/kiso/yurai/index.html#hensen>)참조>

1990년대의 일본경제는 버블이 걷히면서 땅값과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소위 잃어버린 10년)에 접어들면서 관광객의 수도 감소되어 축제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쇠퇴기를 맞이하였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카라스하네토의 통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여 소동은 진정되었으나, 시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축제가 다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축제의 정취나 여운이 없어졌다”, “시민들이 축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민참가의 감소, 관광객의 감소 등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2005년 7월에는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오모리네부타축제검토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축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3. 카라스하네토의 현상(現狀)과 의미

#### 3.1. 카라스하네토(カラスハネト)의 정의와 출현배경

아오모리네부타축제는 하네토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하네토의 복장은 유카타(浴衣)에 하나가사(花笠)를 쓰는 것이 기본이며, 여기에 핑크색 혹은 파란색의 오코시(腰卷)를 하고, 어깨에는 붉은 색의 타스키(襷)<sup>5)</sup>를 두르는 것을 ‘정장’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장의 하네토의 상이 있음에도, 1980년대부터 하네토의 의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하나가사의 착용이 줄어들고, 타스키(襷)의 색상이 다양화 되었으며, 핫피(法被)<sup>6)</sup>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특히 검정색 일색의 변이(変異)된 복장<sup>7)</sup>으로 나타나는 젊은이들이 출현하여 네부타의 운행을 방해하며, 서로 싸우며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관광객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축제관계자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등 축제의 분위기를 망치는 폭력성을 띤 무리들을 ‘카라스하네토(カラスハネト)’ 혹은 ‘카라스’<sup>8)</sup>라 부른다(阿南 2000a:183).

- 5) 옷소매를 걷어 올려 매는 끈. 양어깨에서 양 겨드랑이에 걸쳐 X자 모양으로 어긋나게 매겨 땀.
- 6) 옥호(屋号)·상표(商標) 등을 등이나 옷깃에 염색해 나타낸 겉옷. 직공·여관 종업원 등의 작업복. 옛날에는 무가(武家)에서 가문(家紋) 등을 염색하여 하급 무사나 고용인에게 입혔음.
- 7) 검은 색의 복장(黒装束)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어느 화장품회사에서 네부타축제에 편승하여 하네토들에 섞여 광고지를 관객에게 배포할 때 등에 마네키네코(招き猫)를 그려 넣은 한텐(半纏)을 입고 있었던 것이 의외로 눈길을 끌었던 데서 발단이 되었다(阿南 2000a :190).
- 8) 그들의 행동은 축제에 어울리지 않은 것으로, ‘하네토’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현지에서는, ‘카라스’ 혹은 ‘카라스조꾸(까마귀族)’로 말하기도 한다.

축제의 룰(규정)을 무시한 제멋대로의 지나친 언동을 일삼는 이들은 주위의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문제시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들과 문제점을 보면 표2)와 같고, 지역신문을 통하여 이들의 행위와 분위기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도 있는데 그 기사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2)카라스하네토의 주요행위와 문제점

| 카라스하네토의 행위   | 카라스하네토의 문제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참가(술병을 들고 참가)</li> <li>● 동료들과의 트러블(패싸움)</li> <li>● 하야시 이외의 악기(호루라기)사용</li> <li>● 네부타를 파손한다.</li> <li>● 축제가 끝나도 해산하지 않는다.</li> <li>● 일부의 네부타가 점거된다.</li> <li>● 위협하게 불꽃놀이 폭죽을 터트린다.</li> <li>● 주민 심지어 관광객에게 피해를 입히는가하면 축제관계자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그 원형이 위협받는다.</li> <li>● 관광객유치의 축제개최목적에 반한다.</li> <li>●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이 심하게 위협받는다.</li> </ul> |

<阿南 (2000a:182~183)참조>

“아오모리시, 아오모리상공회의소, 아오모리관광협회의 주최3단체는 1)집합시간(출발30분전)엄수, 2)하네토의 역행금지, 3)하네토는 하나카사(花笠)착용, 4)디스코풍의 춤은 운행단체에서 배제한다. 5)하네토는 켄이나 병 등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주의사항을 운행단체에 전달했다”(東奥日報 1981.7.23).

“아오모리네부타축제가 거대화됨에 따라 거친 행동을 하는 젊은이가 눈에 띄게 증가 했다. 이들은 축제를 통제하는 봉사자들과의 트러블, 여성희롱, 운행코스를 무시한 역행, 기이한 패션, 디스코풍의 춤, 다툼과 소란. 금년은 하네토에 의한 상해치사사건까지 일어났다”(東奥日報 1982.10.4).

“아오모리네부타가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이들의 난폭한 언행이 에스컬레이터 하여 부레코(無禮講)가 되고, 끝내 방종으로 치닫고 말기 때문이다. 매년 축제 후에는 임신중절이 증가하고 여기에는 다수의 여고생이 포함되어있다”(東奥日報 1986.6.30).는 등의 기사가 있다.9)

9) 이밖에, “2일 8시반경 후루가와와 핫코우거리(八甲通)교차점에서 하야시로 참여한 남성이 카라스하네토의 얼굴 등을 얻어맞고 부상, 경찰관 수십 명이 일제히 카라스하네토집단을 제압했다. 9시쯤에는 국도4호 야나기마치(柳町) 교차점부근에서 하네토 속에 섞여있던 백색, 흑색, 자색 풍의 폭주족무리 2,30명을 통제하던 축제관계자 두 명이 그들로부터 얻어맞았다. 불량 하네토그룹이 6시경 세무서 앞거리에서 무질서하게 음주 후 추태를 보여 시민들로 빈축을 샀으며, 대형네부타의 대열에 무리하게 뛰어들어 통제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무저항의 관계자들에게 까지 폭력을 휘둘

카라스하네토(カラスハネト)의 출현배경으로, 아오모리상공회의소의 관계자는 “주최 측이 관광화의 의도로 ‘누구라도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으로 하네토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기에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는 하네토의 증가는 참여자의 무게중심을 바게토(주로 중년층이 참여)에서 하네토(주로 젊은 층이 참여)로 이동시켰다. 젊은 층의 하네토가 증가하면서 규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의 특성이 ‘누구라도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카라스하네토의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카라스하네토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1982년에 카라스하네토들의 싸움으로 25세의 남성이 사망하는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마스크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고, 이것이 거꾸로 카라스하네토의 존재를 알리는 결과가 되어 외부의 젊은이들이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 몰려들었다”(이덕구 2009:86)고 카라스하네토의 출현배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하네토는 원래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네부타에 붙어서 춤을 출 수 있었지만, 관광화의 방침아래 호스트와 게스트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하네토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수적으로 증가한 하네토의 통제를 위하여 고교생의 참가를 금지시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정연하게 줄을 지어 춤을 추게 하고, 정장착용을 강조하는 등 축제 속에 질서(률)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예전에 맛 볼 수 있었던 해방감과 같은 축제의 본질적 측면이 약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카라스하네토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카라스하네토의 대처에 안전요원의 배치와 로프사용, 단속을 위한 조례제정 등의 더욱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카라스하네토현상은 더욱 에스컬레이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나미(阿南 2000a:184)는 카라스하네토의 출현에는 현대 일본사회의 청소년 문제가 투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증가한 하네토로 인해 축제의 무게중심이 중년에서 청소년층으로 이동되었고, 성장환경에 따른 반항적 태도를 지닌 젊은이들의 ‘눈에 띄고 싶어 하는 욕구’가 축제의 장이라는 특수한 장소를 만나 반항적 태도가 양식화되고, 감정이나 미의식의 표현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불만으로 울적한 젊은이들에게 보다 손쉽게 ‘자기주장’ 할 수 있는 본보기가 제시됨에 따라 카라스하네토의 절대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일본사회의 청소년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여, 카라스하네토현상을 설명하였다.

마즈타이라(松平1994:93)도 “개인으로서 분해해버린 도시생활 속에서는 몰려드

렀다”(東奥日報 1992.8.3). “6일 아오모리마루하네부타회(マルハ辰武多会)의 네부타가 운행중 후부의 전기 간판과 초쟁(提灯) 약 15개가 카라스하네토에 의해 찢기고 부서졌다. 또 불꽃놀이 폭죽이나 다른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파손한 듯이 보이는 구멍도 네부타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東奥日報 1995.8.7). “3일 오후 6시반경, 신마치 2가(新町二丁目)에서 카라스하네토로 보이는 젊은이 4명이 서로 싸움을 할 때, 깨진 술병의 파편이 센다이시(仙台市)에서 온 주부관광객(45세)의 목을 찢러 전치 1개월의 큰 부상을 입혔다”(東奥日報 1996.8.5)는 등의 기사도 있다.



는 억압감과 알 수 없는 불합리함의 희구, 현실생활을 역전시켜 에너지를 폭발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어서 어딘가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것이 카라스하네토의 모습으로 축제에 나타난다.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며, 자유참가이며, 익명적이며, 조폭이며,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며 역시 일본의 도시사회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여, 카라스하네토현상을 설명하였다.<sup>10)</sup>

종합해 보면, 1980년대의 일본 사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생활은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온 국민이 일(성장)에만 매진한 결과 산업화의 부산물인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졌으며, 특히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인한 이른바 ‘고도성장세대’<sup>11)</sup>의 청소년 탈선문제(폭주족, 이지메, 욕구불만에서 오는 반항, 사회규범에서의 이탈 등)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시기였다. 다시 말해 급격한 도시화와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 특히 청소년층에게 있어서는 인간관계의 회박화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이나, 고독감, 소외감 등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카라스하네토의 모습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2. 주최 측의 대처와 경과

주최 측은 축제에 카라스하네토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먼저 방법의 하나로 1979년부터 고등학생의 참가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1986년에 고교생의 참가는 각 학교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김으로서 고교생의 참가는 해금되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다. 먼저, “인솔교사의 참석과 하네토의 정장착용을 엄수할 것이며, 흑색과 보라색의 타스키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디스코풍의 오도리와 호루라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하나가사(花笠)의 착용은 금한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학교 측은 책임을 지고 지도해야한다”(東奧日報 1996.8.5)는 엄격한 방침이 있었다.

1983년에는 운행코스에 큰 변화를 주었다. “전후(戰後)에는 출발점이 국도상이었으므로 여기에 내부타가 준비하게 대기하여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국도에서 긴 시간 대기하는 문제와 대기시간에 발생하는 하네토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결하고자 코스를 역회전하여 신마치거리(新町通)의 야나기마치(柳町)교차점에서 출발하여 핫코우거리(八甲通)를 거쳐 후반에 국도에 도달하여 세무서거리 모퉁이를 해산 점으로 하였다. 그러나 코스변경에도 불구하고

10) 야지마(矢島 2006:193)는 오늘날 도시축제의 많은 곳에서 축제의 정식프로그램으로부터 벗어난 장외에서의 적극적 참가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라마즈리(ウラ祭り)라 하며, 현대 일본 도시축제의 특징의 하나로 보았다.

11) 1960의 고도경제성장기에 태어나 1980년대에 20대를 맞는 세대를 말한다.

고 신마치거리(新町通) 전체가 하네토로 메워져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스톱 상태”(東奥日報 1983.8.8)라고 하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그래서 1984년부터는 코스가 늘어나 평화공원에서 해산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축제 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나타난 제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진흥책을 마련하기 위해 ‘네부타비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 배경에는 198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난폭한 카네토들에 의한 난동이 1988년에는 폭력 사건으로 발전하였고,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었다(東奥日報 1989.2.1).

또 네부타의 운행상의 제약과 규제도 병행되었다. 현재 각 단체의 네부타 운행은 대열을 이루어 행진하게 되어 있다. 축제관계자를 선두로 하여 그 뒤를 소형네부타(前なぶた)가 위치하며, 다음으로 하네토집단이 대형네부타를 선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네토집단에 있어서 경찰이 각 네부타 운행단체에 도로이용허가를 내어 주는 조건에는 “하네토 집단은 모두 로프로 둘러 로프 안쪽에 하네토를 바깥쪽에는 안전요원을 배치 할 것. 안전요원은 하네토 50명에 한명의 비율로 약 5미터 간격으로 배치하여 하네토와 관객이 함부로 접촉하지 못하게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운행통제원’ 혹은 ‘통제’ 등으로 불리는 안전요원 50명 정도가 각 네부타의 정장하네토 주위를 로프로 둘러 카라스하네토의 침입을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1996년에는 카라스하네토를 감시, 통제하기 위해서 카라스족을 한 곳으로 모아 네부타를 운행한다는 대책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카라스하네토를 긍정하게 되어, 반대로 카라스하네토를 증가 시킨 결과가 되었고, 이에 1996년 후반에는, 증가하는 난폭한 카라스하네토에 대한 대응으로 아오모리시장을 비롯한 전시(全市)의 유력인사들로 조직된 ‘아오모리네부타축제제문제검토위원회’가 발족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였다.

카라스하네토는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매년 축제 기간 중에 연인원 약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매년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11,000명을 넘어서며 절정에 이르렀다(阿南 2000a:184). 그리하여 2001년부터는 네부타의 운행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하게 된다. 즉, 종래의 차례차례 스타트 방식에서는 운행도중 네부타와 네부타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에 카라스족이 끼어드는 장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왔기 때문에, 미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네부타가 코스 상에 대기하였다가 일제히 스타트하여 일제히 해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최자와 경찰, 운행 단체 및 시민 자원봉사가 하나가 되어 카라스족 통제에 임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아오모리네부타축제(青森ねぶた祭り)보존과 전승에 관한 조례’와 ‘아오모리현(青森県) 폐를 끼치는 행

위(迷惑行為)등 방지조례'가 제정되어 카라스하네토를 단속할 법적근거도 마련되었다.<sup>12)</sup>

그 결과 다음해부터는 카라스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성과를 올리며 분위기는 진정되었으나, 시민참가의 감소, 관광객의 감소 등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2005년 7월에는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오모리네부타축제검토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축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특별위원회는 약 2년간의 총 18회에 걸친 회의록을 정리한 결과물로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방향성'이라는 보고서를 2007년 10월에 내놓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1)운행시간에 대하여 융통성을 가진다(출발 시간과 종료시간을 10~20분 정도 늦출 수 있다). 2)운행방식을 종래의 차례차레스타트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3)네부타의 심사제도를 개선한다(우수 제작자상 신설, 심사위원에 시민참가비율 증가). 4)네부타의 규격은 계속해서 규제하지만 더욱 대형화를 검토한다. 또 이에 따라 신호기, 감지기, 도로표식 등을 정비한다. 5)지치지 않게 춤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비디오 등을 제작 배포하여 계몽에 노력한다. 6)어린이네부타(子供ねぶた)의 자유운행을 검토해 간다. 등의 대책이 들어 있다.<sup>13)</sup>

위의 내용 중에 어린이네부타(子供ねぶた)의 자유운행을 검토한다든지 운행방식의 전환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축제참가를 유도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카라스하네토에 대한 대책 못지않게 축제의 분위기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3.3. 카라스하네토의 의미와 시사점

카라스하네토의 출현배경을 종합하여 보면, 아오모리네부타축제에서 카라스하네토는, 관광화된 축제에 나타나는 부작용현상의 하나로서, 인간관계의 희박

12)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아오모리시민은 모두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보존과 전승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있고, '아오모리현 폐를 끼치는 행위(迷惑行為)등 방지조례'에는 축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카라스하네토가 폭죽을 쏘아 올리거나, 병을 도로에 던지거나, 유료석에 난입하는 행위, 도로, 공원 등지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여러 명 무리지어 시비를 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상습위반자에게는 6개월 이하 혹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조례 (<http://www.nebuta.jp/kiso/jourei/jourei.html>), 아오모리현 폐를 끼치는 행위 등 방지조례(<http://www.nebuta.jp/kiso/jourei/meiwaku.html>)참조.

13) 아오모리네부타축제 공식홈페이지(<http://www.nebuta.jp/info/iinkai/houkokusho.pdf>)참조.

화로 대변되는 현대일본사회의 청소년문제가 바탕이 되고, 여기에 참가자의 양을 추구하는 세속적 목적으로의 상품화로 인하여 안전을 위한 과도한 규제가 필연적이 됨에 따라 나타난 또 다른 형태의 참여자이며, 변화와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자기표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의 고유한 민속자원이 관광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소동의 실체가 카라스하네토이며, 이러한 소동은 경제적 효과만을 의식하여 변화시킨 민속가치는 “황금알을 구해서 어미닭을 죽여 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다(芦田 1990:56)”는 것을 경계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모모리네부타축제에 있어서 카라스하네토현상(패션 감각으로 축제에 참가하는 하네토)<sup>14)</sup>은 이러한 경계의 의미를 넘어 지역민들 사이에 보존과 개발의 담론으로 발전되었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2001년부터 실시된 운행방식의 변경과 2003년의 조례제정으로 카라스하네토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축제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시민참가의 감소와 관광객의 감소 등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면서 ‘네부타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축제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에 의존하던 아오모리경제에 큰 타격을 주면서, 시민들의 하네토의 정장착용에 관한 의식이 크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카라스하네토의 수적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도 깊어지면서 1997년에 실시된 카라스하네토에 대한 아오모리시민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65.9%의 시민이 카라스하네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으며, “무리하게 단속할 필요는 없다” 등으로 용인하자는 견해가 23.6%이었다(東奥日報 1997.8.9). 3년 후인 2000년의 조사에서는 64.8%(총 조사인원 494명중 320명)의 시민이 카라스하네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으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자”는 등의 긍정적 견해도 35.2%나 있었다(東奥日報 2000.11.16).

그러나 주최 측의 적극적인 조치로 카라스하네토가 대부분 모습을 감추고 수년이 흐른 최근(2009년) 아오모리시(青森市)에서 실시한 네부타축제에 관한 의식조사<sup>15)</sup>에서는, “하네토로의 참가자는 정장을 착용해야한다”는 의견이 74%로 정장착용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네토로 참가한 사람의 50%정도가 “정장을 착용하고 참가했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46%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각색(アレンジ)한 복장이었다”고 하고 있다. 또, “매너를 가지

14) 원래 폭력성을 띤 무리들을 ‘카라스하네토’라 불렀지만, 지금은 그 개념이 확장되어 이러한 폭력성을 띤 무리들뿐만 아니라 단순히 흑색(카라스) 혹은 백색(백조)의 변이(變異)된 복장으로 나타나는 젊은 무리 즉, 축제의 주어진 틀에 관계없이 패션 감각으로 축제에 참가하는 하네토들을 통틀어 ‘카라스하네토’라 부른다.

15) ねぶた祭りに関する調査(<http://reposes.jp/2327/6/16.html>) 참조.

고 참가한다면 카라스하네토나 정장이외의 하네토복장도 괜찮다” “다소의 변형이라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67.2%에 달하고 있어, 시민들 스스로 정장착용에 대한 모순된 견해를 나타내면서 하네토의 정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부타축제 공식홈페이지 게시판<sup>16)</sup>에도 “전통은 지켜져야한다”, “풍기를 문란케 하며 무서운 이미지이다”, “노출이 심하여 꼴사납다”는 등의 이유로 카라스하네토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생동감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다”, “축제의 본질적 측면에 가깝다”,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축제분위기가 살아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용인하는 목소리가 맞서있다.

표3)카라스하네토의 현상과 의미

|      |   |
|------|---|
| 발생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일본사회의 청소년문제가 바탕</li> <li>• 축제의 무분별한 관광화(주체와 방식의 변화)</li> </ul>   |
|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이된 복장 착용</li> <li>• 각종 ‘룰(규정)’을 위반</li> <li>• 폭력행사</li> </ul>   |
| 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부터 출현</li> <li>• 매년 3000명에서 5000명 출현, 2000년에 11000명 기록 피크</li> <li>• 2002년부터 거의 모습을 감춤</li> </ul>  |
| 대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생참가금지령</li> <li>• 로프사용</li> <li>• 경찰, 학부모, 교사의 합동지도</li> <li>• 안전요원배치, 단속조례제정</li> <li>• 운행방식변경 등 새로운 룰과 규제로 적극대처</li> </ul>                                     |
|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자원의 진정성(원본)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li> <li>• 민속자원의 무분별한 관광화에 대한 경계임과 동시에,</li> <li>• 관광콘텐츠로서의 가치충족을 위해서 한번 훼손(변화)된 민속가치는 또 다른 훼손(변화)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li> </ul> |

주최 측은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전통을 온전히 전승해야하는 의무와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살려 경제적 효과에도 기여해야하기 때문에, 축제의 보존과 관광화라는 모순되는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축제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오모리네부타축제검토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전술한바와 같은 대책을 내놓게 되었던 것이다. 필자의 2008년 필드워크에서도 축제현장의 실제분위기는 폭력행위와 안전사고를 염려한 주최 측의 안내와

16) 네부타축제 공식홈페이지(<http://www.nebuta.jp/bbs/c-board.cgi>)참조.

철저한 대비는 충분했지만 정장착용에 대하여는 각 운행단체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고 있어서 네부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복장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폭력만 없다면 축제참가복장(하네토정장)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결론적으로 아오모리네부타축제는 문화정책의 진흥을 의도한 중앙정부, 관광수입을 기대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다양한 동기부여에 따라 관광 상품화되어, 본래의 전통적 모습(진정성 혹은 원본)에서 크게 벗어난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참가계층의 변화 즉, 젊은이들이 축제의 주역이 되면서 카라스하네토가 출현하였고, 이들에 의한 소동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소동으로 인하여 또다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아오모리네부타축제의 관광 상품화과정에 나타나는 카라스하네토 소동은, 민속자원의 무분별한 관광화에 대한 경계임과 동시에, 관광인프라측면의 하드웨어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콘텐츠로서의 가치충족을 위한 소프트웨어측면의 민속가치도 한번 훼손(변화)되면 또 다른 훼손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 무엇보다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 IV. 나가면서

초나이사람들에 의해 응집력을 과시하며 도시의 주도권을 다투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집단 내의 통합성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던 과거 공동체 사회에서의 아오모리네부타축제 속의 소동은 목적을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서 암묵적 허용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관광수입을 기대하는 지자체의 문화진흥책에 따라 상품화(이벤트화)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는 오늘날의 축제 속의 소동은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방지해야하는 대상으로 되어있다. 즉, 축제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근대적 의미의 소동은 안전과 경제를 추구하는 현대축제에서는 제거의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소동을 허용하지 않는 현대축제 속에도 소동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소동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의 산출물로 인간관계의 희박화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이나, 고독감, 소외감 등의 표출로 볼 수 있었다.

말하자면, 공동체중심의 전 근대적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동을 생산하는 장치로서 축제가 기능했지만, 민주화·산업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상품(이벤트화)이 된 현대축제에서는 현대사회가 생산한 소동을 소비하는 장

치로 축제는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예나 지금이나 축제와 소동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동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맥락적 의미는 ‘생산’에서 ‘소비’로 변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오모리시(青森市)는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도시이자 홋카이도(北海道)와 본토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도시민의 성향은,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도시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유행과 사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감각이 뛰어나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며, 짧은 여름에 비해 겨울은 길고 눈이 많은 자연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름 한철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정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공동체의 전통축제를 보다 빨리 변화(관광 상품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도시민의 성격(도시특성)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아오모리사람들은 현대인의 관광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통축제에 첨가시키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제외하면서 전통축제에 현대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어느 지역보다 빨리 하였고,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카라스하네토에 의한 소동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여, 같은 맥락에서 보존과 개발의 담론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공통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도시(지역)의 축제는 도시의 특성 즉, 주력산업에 따른 구성원들의 성향(도시민의 성격)등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축제의 변화와 도시성격과의 관계성, 즉 도시특성이 축제의 변화에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를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参考文献】

- 김천배역(1982) 『바보제』 현대사상사
- 류정아역(1998) 『축제와 문명』 한길사
- 류정아(2003) 『축제인류학』 (주)살림출판사
- 유명숙역(1995) 「바흐친,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축제적인 것」 『바흐친과 문화이론』 문학과 지성사
- 이덕구(2009) 『공동체축제에서 관광상품으로의 변화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일본 아오모리네부타축제와 히로사키요사코이츠가루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青森市市史編纂係(1909) 『青森市沿革史 第二巻』 青森市
- 青森ねふた誌出版委員会 監修 宮田登・小松和彦(2000) 『青森ねふた誌』 青森市
- 芦田徹郎(1990) 「祭りと現代社会・序説」 『熊本大学教養部紀要人文・社会科学編』 25, pp.31-62
- 阿南 透(1999) 「Jリーグにおける‘祝祭’と‘騒動’:儀礼研究の視点から」 江戸川大学 『情報と社会』 Vol.9 pp.89-94
- \_\_\_\_\_ (2000a) 「青森ねふたとカラスハネト」 日本生活学会編 『祝祭の100年』 ドメス出版 pp.173-198
- \_\_\_\_\_ (2000b) 「青森ねふたの現代」 青森ねふた誌出版委員会 『青森ねふた誌』 青森市 pp.252-277
- \_\_\_\_\_ (2003) 「青森ねふたの現代的変容」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03集 pp.263-299
- 安藤直子(2003) 「東北地方における祭りの観光化と担い手の主体性-盛岡市の‘チャグチャグ馬ゴ’と‘さんさ踊り’を事例として」 お茶の水女子大学博士論
- 大湯卓二(2000) 「青森周辺のねふた」 青森ねふた誌出版委員会 『青森ねふた誌』 青森市 pp.26-59
- 清野耕司(2000) 「青森ねふたの歩み」 青森ねふた誌出版委員会 『青森ねふた誌』 青森市 pp.66-118
- 小松和彦(2000a) 「ねふた祭りの基本構造と構成要素」 青森ねふた誌出版委員会 『青森ねふた誌』 青森市 pp.2-8
- \_\_\_\_\_ (2000b) 「都市祭りとしての青森ねふた」 青森ねふた誌出版委員会 『青森ねふた誌』 青森市 pp.9-18
- \_\_\_\_\_ (2000c) 「ねふた起源伝承」 青森ねふた誌出版委員会 『青森ねふた誌』 青森市 pp.60-64



- 成田 敏(2000) 「青森ねぶたの形態とそれを支えた人々」 青森ねぶた誌出版委員会 『青森ねぶた誌』 青森市 pp.120-186
- 松平 誠(1994) 『現代ニッポン祭り考』 小学館
- \_\_\_\_\_ (1999) 「都市祝祭の現代的意味」 東京市政調査会編 『都市問題』 第90巻第8号, pp.3-12
- 三井 泉(2006) 「地域文化と企業の関わりに関する経営人類学的考察- 青森ねぶた祭りの事例を中心として」 『商学論集』 75巻1号 pp.5-18
- 森田三郎(2000) 「祭りの創造-よきこいネットワークを考える」 日本生活学会編 『祝祭の100年』 ドメス出版, pp.237-260
- 柳田国男(1990) 「日本の祭」 『柳田国男全集13』 弘文堂書房

東奥日報

<http://repositen.jp/2327/6/16.html>

<http://www.city.aomori.aomori.jp/koho/pro/proc01.html>

<http://www.nebuta.co.jp/shouwa/rekisi/top.htm>

<http://www.nebuta.jp/bbs/c-board.cgi>

<http://www.nebuta.or.jp/kiso/yurai/index.html#hensen>

<http://www.mni.ne.jp/~aoimori/nebuta/sub05.html>

<http://www.nebuta.jp/info/iinkai/houkokusho.pdf>

<http://www.nebuta.jp/kiso/jourei/jourei.html>

<http://www.nebuta.jp/kiso/jourei/meiwaku.html>

## 要 旨

本稿は、青森ねぶた祭りにおいてカラスハネトによる騒動の実態(カラスハネトの発生背景と経過)を察してその意味を分析した。すなわち、青森ねぶた祭りではなぜどんな理由からカラスハネトが発生し、彼らはどんなに騒動を起こしたのかを社会文化的な脈絡から察し、そのような騒動の意味に対して考えてみた。

その結果、カラスハネトは、観光化された祭りに現われる一つの副作用の現象として人間関係の希薄化による現代の日本社会の青少年問題が背景になっている上、やりすぎた規制が呼んだ別の形の参加者であり、変化と個性を追い求める若者達の自己表現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青森ねぶた祭りにおいてのカラスハネトは地元の人の間に保存と開発の談論として発展したと言うのにもっと大きな意味がある。言い換えれば、青森ねぶた祭りは文化政策の振興を図る中央政府と観光収入を期待する地方自治体と住民の多様なモチベーションによって観光商品化され、その真正性に大きな変化があったが、若者達が祭りの主役になりながら再び大きな変化に直面しているのである。

青森ねぶた祭りの観光化過程に現われたカラスハネトによる騒動は、観光インフラ側面のハードウェア的な開発だけではなく観光コンテンツとしてのソフトウェア的な側面の伝統民俗価値も一度変化すれば再び変化しやすいということを知らせるところに最も意味がある。

昔も今も祭りと騒動は別ではなく連れされる概念として取られるが、その脈絡的意味は「生産から消費へ」と変化されていると言えよう。即ち、共同体中心の前近代的社会の中ではその社会が要する騒動を生産する装置として祭りが機能していたが、民主化・産業化された現代社会の中で商品(イベント化)になった現代の祭りでは現代社会が生産した騒動を消費する装置として祭りは機能してい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青森ねぶた祭り、カラスハネト、騒動、民俗価値の変化、生産から消費へ

투 고 : 2010. 8. 31

1차 심사 : 2010. 9. 11

2차 심사 : 2010. 9. 25